

보도시점 4.10.(금) 석간 < 4.10.(금) 10:00 >

중기부 장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 원가 상승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 물류 바우처 등의 회복정책들을 신속하게 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전환 지원을 통해 중동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선제적으로 기업 체질도 개선해 나갈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일(금),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인 (주)신광엠애플을 방문하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 현장방문 >

- **(일시·장소)** '26.4.10(금), 10:00~11:00, (주)신광엠애플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 28)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신광엠애플 대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 등 10명 내외
- **(주요내용)** 생산라인 점검,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이번 방문은 생필품 생산과 제조 공급망의 핵심 기반인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정, 가격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회복 지원과 선제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하는 투 트랙 전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속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 물류 바우처 등 위기 극복의 정책 수단을 신속히 집행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공정 효율을 높여 불량률과 원가 부담을 줄임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 전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현장방문은 한성숙 장관이 생산 라인을 직접 점검하며 근로자들을 격려한 뒤 기업 대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원자재 수급 애로뿐만 아니라 원료비 상승이 납품가에 즉시 반영되지 못하는 채산성 악화 등의 건의사항들이 논의되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은 우리 제조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늘 건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즉각 반영해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전쟁 발생일부터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참여하는 신고센터를 포함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며,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공급망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570)
	지역혁신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민수 (044-204-7571)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 현장방문 계획 (안)

□ 추진배경

-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생필품, 제조 공급망의 핵심인 플라스틱 사출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

□ 방문 개요

- (일시) '26. 4. 10(금), 10:00 ~ 11:00
- (장소) 신광엠애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 28)
- (참석) 중기부 장관, 신광엠애피 대표 등 8명
 - 중기부 : 장관, 지역기업정책관, 경기지청장, 불공정거래개선과장
 - 지원기관 : 중진공 기업금융이사, 기정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장
 - 중소기업 : 신광엠애피 대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
- (내용)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 세부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분)	■ 생산라인 점검, 근로자 격려	장관, 대표
10:10 ~ 11:00 (50분)	■ 업계 애로,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전원